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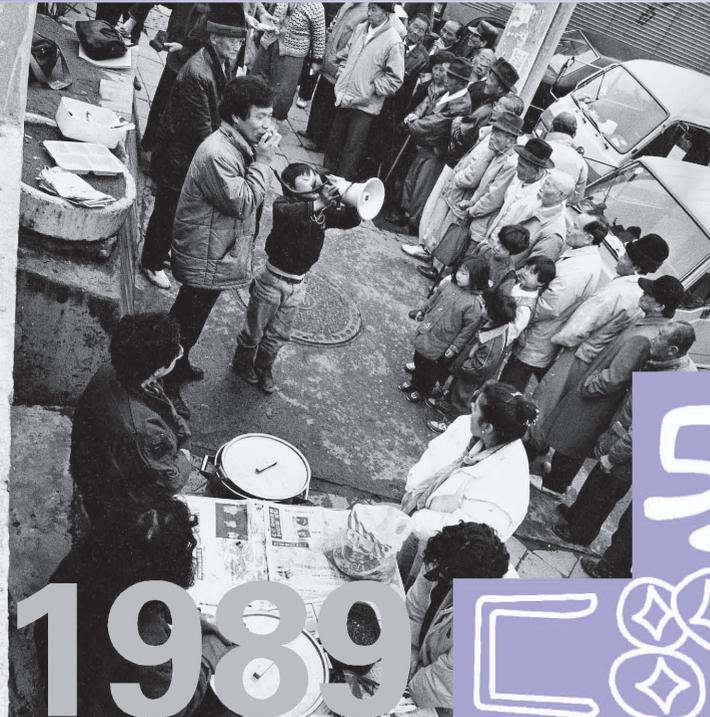
2012.05

다양성안에서일치를 추구하는다일공동체

www.dail.org

다일 공동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도...



2012

감사가 넘치는 5월에...

해마다 5월은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에게는 매우 특별한 달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도 재현되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매년 5월 2일을 오병이어의 날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파송된 가정을 축복하며

날마다 이어지는 생명의 역사는 이제 청량리를 넘어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널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밥퍼나눔운동에 날마다 365일 배식비 후원에 동참하시는 후원회원들과 식사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온전히 맡아주시는 자원 봉사자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루어질수 없는 사랑의 기적입니다.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그저 단 하루, 단 한 끼의 진지를 정성껏 대접했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그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우리 동네 주민들이 더 가난한 노숙인들을 위해 주머니를 텅 것입니다.

2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날마다 감사, 감사, 감사가 넘칩니다.

이제 다일공동체는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까지 밥퍼나눔의 영성과 정신을 가지고 기근과 질병퇴치사역을 더욱 뜨겁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24년전 청량리 야채시장의 쓰레기 더미 위에서 출발했던 처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아프리카 대륙을 위하여 이제 한 가정의 파송으로 탄자니아 사역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사람에게 나누었던 한 끼의 식사처럼 그 마음으로 말입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눔에 동참하며 감사가 넘치는 5월이 되시기를 ...

2012년 5월에
작은형제 **최)원도** 목사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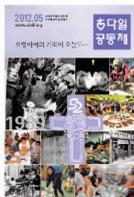
* 하나님을 기쁘시게

* 이웃을 행복하게

* 세상을 아름답게

C O N T E N T S

- 02 Focus 희망으로 가는길 나눔의 실천 밥퍼나눔운동을 돌아보고 내다보며...
- 06 함께 나누는 이야기 좋은 다일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 08 다일의 현장 밥퍼나눔운동본부
- 10 다일의 현장 설곡산다일공동체
- 12 다일의 현장 네팔다일공동체
- 14 다일의 현장 탄자니아다일공동체
- 16 포토에세이
- 17 밥퍼의 '밥심' 캠페인
- 18 다일 뉴스
- 23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께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cover story

24년간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수많은 후원자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의 크고 작은 손길이 이어져 계속될 수 있었던 밥퍼나눔운동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며...

후원문의 및 신청 02-2212-8004
www.dail.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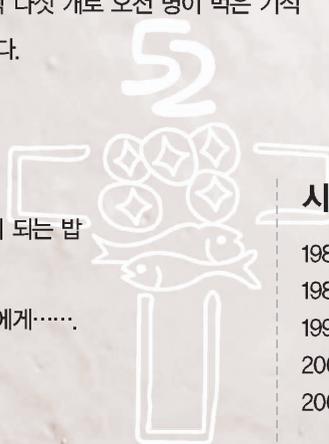


나눔의 실천, 밥퍼나눔운동을 돌아보고 내다보며...



24년 전 어려웠던시절 함께 도우셨던 분들

오병이어 -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이 먹은 기적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밥 한 그릇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실한 것
 생명이 되고 누군가의 삶에 희망이 되는 밥
 이 밥을 나누고 싶습니다,
 더 많은 이웃들과 더 많은 생명들에게.....



+밥심

시간 순으로 보는 밥퍼나눔운동의 역사

- 1988. 11. 청량리역에서 라면을 끓여드리며 밥상공동체 시작
- 1988. 12. 거리성탄예배 시작
- 1998. 12.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설립
- 2002. 08. 쌍굴다리에서 밥퍼나눔운동본부로 이전 감사예배
- 2005. 05. 오병이어의 날, 결식아동을 위한 20만 서명운동 및 밥퍼나눔운동 발대식
- 2006. 05. 밥퍼 300만 그릇 기념 나눔 잔치
- 2007. 05. 밥의 날 선포
- 2007. 05. 밥퍼효도관광 시작
- 2010. 11. 떡 방앗간 '떡퍼' 개소
- 2010. 12. 신축밥퍼 개원식 및 감사예배
- 2011. 05. 밥퍼 500만 그릇 기념 나눔 잔치
- 2012. 05. 밥퍼 효도잔치 및 '밥숨' 조성

1988 2012



* 청량리역에 쓰러진 노인에게 라면을 끓이며 시작된 밥퍼, 쌍굴다리에서도 그 다음 옮겨진 천막식당에서도 매일 퍼진 밥, 먹을거리나 일손이 없어 중단되는 일은 단 하루도 없는 기적의 날들...

밥퍼나눔운동은 모든 사람이 살아서 숨 쉬고 활동 할 수 있게 하는 힘ियो,
생명이음줄운동입니다.

밥퍼를 찾는 무의탁노인과 노숙인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
해외밥퍼를 찾는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밥퍼에서 나누는 밥심입니다.

+생명



Focus 희망으로 가는길



+나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지요? 밥은 나눌수록 많아집니다.
 청량리 역 광장에서 시작한 한 사람에게 나눈 한 그릇이
 지금은 매일 7개국에서 5,000명과 밥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밥 나눔의 릴레이는 사랑 없이는 이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① 장소는 바뀌어도 여전히 매일 나누어지는 밥 ② 쌍굴다리 옆에 세워진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14년 만에 지붕 아래 놓인 식탁에 차려진 밥 ③ 23년 만에 튼튼히 세워진 나눔의 현장 밥퍼나눔운동본부 ④ 쌀 한 톨의 기적에 동참합니다 ⑤ 매년 2000여 명이 오는 거리성탄예배 ⑥ 밥퍼나눔 500만 그릇을 감사하며...

+섬김

쌍굴다리 아래에서부터 지금의 밥퍼니눔운동본부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함께한 50-7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다일공동체는 매일 따뜻한 밥을 퍼드립니다. 아직 세상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과 함께 서번트 리더십을 실천하며 온 세상에 꾸준히 섬김의 릴레이를 이어갑니다.



① 이 빵 먹고 섬기는 리더가 될 캄보디아 아이들
③ 네팔에서도 무료로 섬기는 겸손한 마음
⑤ 매일 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청량리 밥퍼

② 박상원 홍보대사가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전하는 밥
④ 오늘 하루는 넥타이 대신 앞치마를 하고 밥퍼 봉사하는 날
⑥ 365일 이어지는 후원의 손길들

5월의 다일공동체 밥퍼니눔운동본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일

예수님께서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듯이 라면으로 시작한 다일공동체의 밥퍼니눔 운동이 365일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동참하는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으로, 하루하루를 눈물겹게 살아가시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과 제 3세계의 아동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주어서 그 현장은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여러분의 작은 나눔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참해 주세요.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오병이어감사예배

매년 5월 2일은 오병이어의 날입니다. 24년 전 쌍굴다리 아래서 밥을 푸던 첫 마음을 기억하며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이 날은 특별히 밥상공동체 어르신들께서 100원씩 식사비로 낸 자존심유지비를 아시아다일비전센터 세우기에 전달하고, 사업장의 수익금을 후원하는 아빠타(아름다운밥퍼)3호점이 참석하여 크기에 상관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일시: 2012년 5월 2일(수) / 장소: 밥퍼니눔운동본부

밥퍼효도잔치

밥퍼에 오시는 어르신 분들께 자식 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진지를 대접하고, 즐거운 공연으로 함께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주신 공연 잔치, 어느 날보다 최고의 날로 기억되길 소망해봅니다.
일시: 2012년 5월 8일(화) / 장소: 밥퍼니눔운동본부 앞마당

후원참여

일시후원 : 밥퍼일일배식비 후원

오늘 하루는 나와 우리가 밥퍼를 찾는 노숙자, 행려자, 무의탁 어르신들께 진지를 대접합니다. 십시일반으로 작은 나눔에 마음을 담습니다.

정기후원 : 밥퍼 만사후원 (1구좌 / 월1만원)

밥퍼 365후원 (1구좌 / 월36,500원)

국민은행 010901-04-037581 (사회복지법인다일복지재단)

후원문의 02. 2212. 8004 (다일복지재단)

봉사참여

밥퍼는 주방봉사 뿐만 아니라 세탁봉사, 청소봉사, 영상봉사 등 다양한 봉사자 분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봉사문의) 02. 2214. 0365 (밥퍼니눔운동본부)

좋은 다일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성경 속 어린이가 자신이 가진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내어 놓아 5천명이 먹었던 이야기처럼 다일공동체에는 많은 분들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놓아 모아진 후원금으로 지금의 다일공동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한국에 오신, 베스트셀러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의 「눈물 젖은 헌금」의 주인공 박명화 사모님을 통해 다일공동체는 다시금 이렇게 고백하며 다짐해 봅니다.

“좋은 다일공동체를 만들자!”

여보! 우리도 저런 섬기는 목회하자!

갓 해외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과 저 그리고 두 딸은 새 교회 개척준비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다가 다일공동체 성탄 특집 프로그램을 함께 보았는데, 그 때 최 목사님의 삶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은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도 최 목사님처럼, 바로 저런 섬기는 목회를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예기치 않았던 사고, 그리고 남겨진 보상금

‘여보 우리도 최 목사님처럼, 바로 저런 섬기는 목회를 합시다.’ 라는 그 말을 남긴 지 며칠 후에 교통사고로 남편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슬픔도 사라지기 전에 남편의 보상금 5천 만원을 들고 최일도 목사님과 알고 지내온 친오빠와 함께 588에 위치한 다일공동체를 찾았습니다.

“장례를 모신 후에 보상금이라는 게 얼마 나왔더군요, 그 기막힌 돈을 놓고 무엇에 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주책없이 눈물만 내더군요, 그래도 자꾸 기도하며 생각하다보니 그때 TV를 보며 남편과 나눈 이야기가 맘에 걸렸습니다. 이진 교회를 개척하려고 모았던 돈과 보상금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돈을 받아서 목사님 사역에 써주세요. 남편이 못다 이룬 꿈을 목사님과 더불어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자 최목사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저희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 거두어주세요.”

“아니 왜요. 왜 못 받으신다는 거죠,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은 사모님과 어린 딸들을 위해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산입니다. 그것도 목숨을 잃으신 대가로,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그 돈을 받아 쓸 수 있겠어요? 아무리 주님의 일을 위

해서 쓴다고 해도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목사님의 단호한 말씀에 저 또한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라니까요, 남편은 당신의 꿈을 못 이룬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꿈만은 우리가 살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원문 참고-

눈물 젖은 헌금에 담긴 못다 이룬 꿈

눈물 젖은 헌금을 받아두고 그 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울며 기도하며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받아서 정말 목사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자, 좋은 다일공동체 만들자, 이렇게 사연 있는 돈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다일공동체가 함부로 갈 수 없다, 끝까지 잘하자, 그리고 기회가 될 때 우리가 사모님과 두 딸을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두 딸들에게 장학금이라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약속했습니다.

이 후 박명화 사모님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사시는지도 모르고 연락 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명화 사모님께서 다니시는 교회의 박효성목사님께서 밥퍼책에 난 ‘눈물 젖은 헌금으로’ 부분을 읽고 우리 교인 이야기라며 미주다일공동체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날 박목사님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박명화사모님의 꽃집에서 기도하고 오시자마자 밥퍼책을 펼치시면서 그렇게 다시 인연이 되어 대학생, 고등학생이 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큰 딸은 대학을 졸업해 취직을 했고, 막내딸은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일과 함께 훌쩍 자란 아이들과 박명화 사모님은 이렇게 고백하며 다일공동체와 함께 꿈을 꾸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며 다일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오병이어 기적의 꿈

5월 2일은 다일공동체가 항상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의 기적을 기억하는 오병이어의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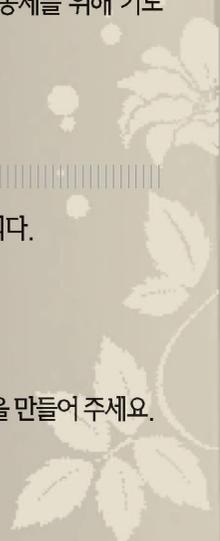
이 날이 다가올수록 다일공동체는 다시금 처음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 시작된 일이, 이제는 국내외와 해외에서 5,000여명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 나누어 주시고, 눈물로 기도해주시고, 몸으로 동참해 주셔서

지금의 다일공동체가 계속 밥을 나누고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주세요.

당신이 제 곁에 계셔 밥맛이 나고 살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심과 숨이 있는 ‘**밥숲**’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명의 나눔이 있는 청량리 밥퍼 현장.

오늘도 밥퍼는 그 생명을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위해

날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립니다.

거리에서 시작된 밥퍼가 14년 만에야

인간답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이 마련되고

또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밥퍼에 마당이 생겨 심과 숨이 있는 ‘밥숲’이라는 이름의

도심속의 작은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밥퍼가 시작된지 25년.

밥퍼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여러분들의 마음 담아

매일 밥이 퍼지고, 옷이 나뉘지는 곳

매일매일 생명의 축제가 열리는 밥퍼.

다시한번 나눔과 섬김의 자리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시작된 밥퍼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이제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까지 이어져 갑니다.

이 나눔과 사랑의 씨앗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진 ‘밥숲’에서 열매 맺어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밥숲’은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의
앞마당에 조성되고 있는 공원으로
밥퍼를 찾는 분들과 지역주민들의 참 쉼터가 되고
생명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밥퍼와 함께해 주시겠어요?

마음의 밥숲, 나눔의 밥숲, 축제의 밥숲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밥 퍼 는 ○○ 이 다

밥퍼는 살아 움직이는 사랑이다. - 뷰티플 마인드 / 조은미

보도를 통해 듣기만 했던 단체에 뷰티플 마인드 졸업생인 인연으로 (아들이) 처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홈스쿨 과정 가운데 있는 아이에게 훌륭한 사랑의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단체를 만나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또한 모자의 특별한 추억도 만들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 넘치시길 기도드리며

밥퍼는 엄마다. - 대화 다솜 클럽 / 홍주연

엄마는 가족들에게 밥과 사랑을 준다.
밥퍼는 사람들에게 밥과 사랑을 준다.

밥퍼는 우리의 희망이다. - 건설공제조합 / 박홍균

52년의 인생 중에 이렇게 희망과 행복을 느낀 것이 오랫동안입니다.
열심히 식판과 술을 닦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닦아야 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밥퍼는 깨+사랑이다. - 지방행정연수원 / 김보연

내가 한 끼 먹는 식사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루 전부일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더 소중히 생각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겠고, 더욱 더 많이 철저하게 마음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밥퍼는 엄마손이다. - 지방행정연수원 / 장완택

배고픈이에게 한끼 식사.
아플때 만져주던 엄마의 손처럼. 배고픈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는 치유의 손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따듯한 손으로 많은 이를 만져 주시길~

밥퍼는 모든 이의 희망이다. - SK 텔링크 / 문성신

가장 기본적인 식(食)을,
어려운 어르신들께
뜻을 같이 한 분들의 후원으로,
제공할 수 있으니까.



와서 보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33:2~3)
나를 만나고 대 자연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침묵의 성지 설곡산은 개나리가 노오란 자태를 드러내며 활짝 웃고, 산 굽이굽이 마다 진달래가 고운 분홍색으로 설곡산을 화사하게 수놓고 시원하게 쏟아지는 계곡물과 산 새들의 맑고 청명한 노래 소리가 마치 오케스트라의 협연 같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살려 만들어진 자연휴양림

산책길은 심신수련 및 목상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응답봉, 능력봉, 일치봉, 하늘공원 그리고 생명샘을 지나며 진정한 쉼과 치유의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자연치유센터 갈보리채플에서는 매일 회복을 위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랍고 은밀한 선물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산골 깊은 곳이어서 오실 엄두를 내지 못하셨던 분들도 6월부터는 서울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다일공동체 셔틀버스를 이용하셔서 오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설곡산에서 여러분을 두 팔 벌려 기다리겠습니다.

글/ 이모세 원장(설곡산다일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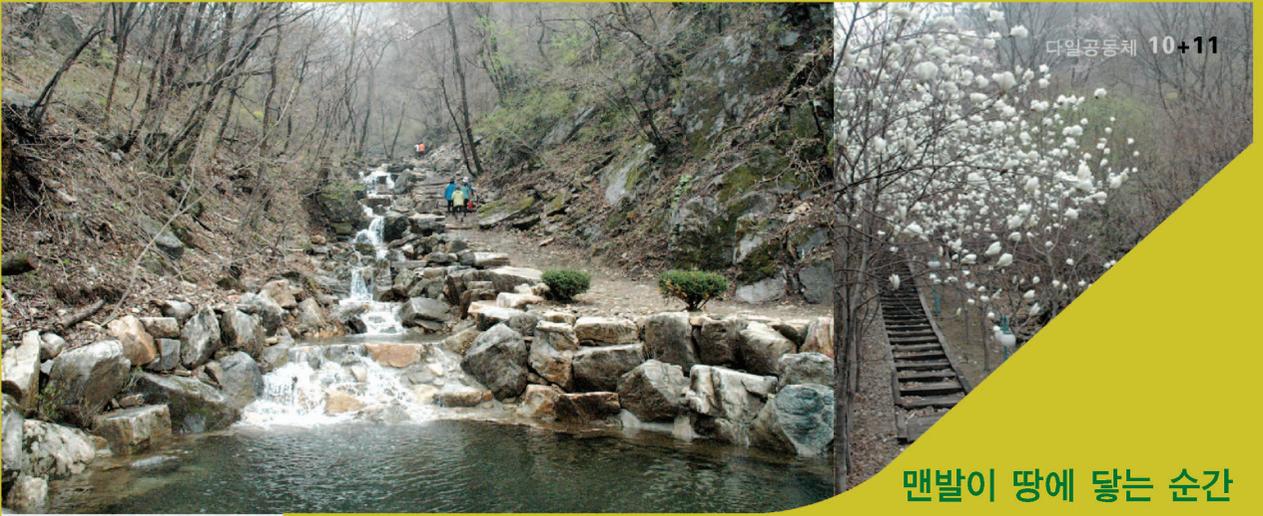
* 차량 운행 일정

매일 오전, 오후 2회 설곡산다일공동체(경기도 가평)와 밥퍼니눔운동본부(서울 청량리)에서 출발

설곡산> 청량리
오전 8시 설곡산다일공동체 출발
9시 청량리 밥퍼니눔운동본부 도착
오후 5시 설곡산다일공동체 출발
6시 청량리밥퍼니눔운동본부 도착

청량리> 설곡산
오전 10시 청량리 밥퍼니눔운동본부 출발
11시 설곡산다일공동체 도착
오후 7시 청량리밥퍼니눔운동본부 출발
8시 설곡산다일공동체 도착





맨발이 땅에 닿는 순간
나와 땅은 하나

주님과 함께 걷는 “맨발로(路)”의 초대

문의 (당일 방문 및 숙박 가능)

031. 585. 2004 설곡산다일공동체

010. 6375. 8004 (이모세 자연치유센터 원장)

www.dail.org

신을 벗고 맨발로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흙을 밟으며 걷는 길
걸으며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길
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
맨발로(路)

나를 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과
발걸음을 무겁게 했던 것들일랑
내려놓고 오세요.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두 팔과 두 팔이 만나 네팔이 되었습니다.

두 팔과 두 팔이 만나 네팔이 되었습니다.

가슴과 가슴이 만나 행복했습니다.

눈물과 눈물이 만나 기쁨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마음들이 만나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 빈민촌에서 가슴이 뜨거운 분을 만났습니다.

빈민촌 아이들에게 작은 소망을 심어주고 싶다며 이 빈민촌에서 처음 후원자가 되셨습니다.

네팔돈 600루피..... 한국 돈으로 8,250원, 미국 돈으로 7.5불

가난한 촌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감격의 속울음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꼬~옥 안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왼쪽부터 김효은, 류성은, 이진선 간사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네팔다일공동체를 사랑하셔서 1년간 네팔다일공동체를 섬길 세 분의 간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해원협 단원으로 앞으로 1년간 네팔다일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 김효은, 이진선, 류성은 간사님이 와서 밥퍼, 이동결연, 행정, 지태다일유치원, 방과 후 공부방, 특별활동 등 다방면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네팔 현지인 스텝들과 한국에서 온 간사님들이 하나 되어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감사, 감사뿐입니다. 이 간사님들은 네팔을 가슴에 품고 섬기기 위해 김효은 간사님은 푸스파(꽃), 이진선 간사님은 산티(평화), 류성



청소년봉사팀(맨 앞이 13세 소년 수전이 봉사하는 날)



지태다일유치원 졸업식 날

은 간사님은 사하라(뚝는 사람)라는 네팔이름을 지었습니다. 네팔 땅에 꽃과 평화를 심고 이 민족을 도울 미녀삼총사 간사님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네팔은 지난 2008년 여름, 왕정이 무너지고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어정쩡하게 공존하는 정당정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나라에는 헌법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도 법이 없어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자연스럽게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질서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고, 남을 돕고 섬긴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300여명에게 따뜻한 아침밥을 대접하는 네팔다일비전센터에서도 현자인 자원봉사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퍼에 오는 아이들 가운데 13세 이상 된 청소년 봉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동생들과 친구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체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0여 명 이상의 아이들이 자원하여 봉사를 하는데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우리 네팔 다일 청소년 봉사팀에게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13세 수전이라는 소년은 이 봉사 팀 중에 키가 가장 작습니다. 불과 4~5세 아이의 키밖에 되지 않지만 가장 열심히 봉사하는 사랑스런 소년입니다. 공부도 어찌나 열심히 하는지 항상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옵니다. '수전'이라는 이름의 뜻은 '좋은 사람(Good Man)'인데 자기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친구입니다. 기존의 밥퍼 앞치마가 너무 커서 특별히 제작하여 선물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팔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도제목부터 마음을 모아 중보기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하나씩 응답해주시는데, 어찌나 세밀하시고 시기적절하신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 밥퍼 주방에 필요한 냉장고와 스텝들의 발이 되는 자전거를 한국의 천사를 통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신 후원자님께 거듭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팔다일가족들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다음 중보기도 제목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도제목으로 올려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침 어느 선교사님께서 잠시 빌린 프로젝트로 다양한 영상과 기독교영화를 보여주었는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스텝들과 마을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 제 마음이 짠했습니다. 빈민촌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기독교 영상과 감동적인 영화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문화혜택을 주며, 소망과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실 네팔을 위한 또 다른 귀한 천사를 찾습니다.

네팔다일공동체에서 오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네팔을 섬길 자원봉사자들과 선교 팀을 찾습니다.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열방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면 됩니다. 저희들의 두 팔과 합쳐 두 팔을 보태 네팔을 섬길 분들은 네팔다일공동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팔다일공동체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두 팔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예뵈!

문의) TEL. 977-98494-58330, 977-98413-84069
E-mail. babperdail@hanmail.net

글/ 박중원 원장(네팔다일공동체)



새로운 꿈을 안고 탄자니아로

탄자니아는 인도양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민국 50위 안에 포함되고, 천 명당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81%, 유아 사망률 51%를 기록하는 경제, 사회적 전반적으로 절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다자간 양자 간 국제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별히 HIV/AIDS의 확산은 아프리카 내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인 나라입니다.



그 땅에 아무것도 없지만 개척자의 마음으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24년 전 아무런고 없이 아무런 도움의 손길 없이 지금부터, 여기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청량리역 광장에서 라면을 나누며 시작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4월 23일 변창재원장과 이현신부원장은 탄자니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참 좋은 벗이었기에 탄자니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좋은 벗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분을 통해서 검은 대륙 그 어디나 환한 웃음이, 어두운 고통의 터널에 한줄기 빛이, 척박한 땅이 사랑으로 풍요로워 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때마다 동행하며 때마다 임재 하셔서 인도하여 주실 그 걸음걸음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문의 070 8220 3669 Cell 255 786 740 003

E-mail. bcj337@dail.org / dail8004@gmail.com

변창재 원장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두 사람을 환송하며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오늘 밤 비행기로
사랑하는 변창재원장과 이현신부원장이
아프리카 대륙을 향해
외롭고도 어려운 길을 떠났습니다.
참 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그야말로 맨 땅에서 이 신혼부부가
맞부딪칠 시련과 역경을 생각하니
영적 아버로서 자식을 전쟁터로 보낸 것만 같아
마음이 저려 와서 생방송 진행을 마치자마자
약속을 연기하면서 곧바로
청량리로 달려왔습니다.

잠시라도 헤어짐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
아쉬움과 미련이 남기 마련이라
친 자식같이, 형제같이 여겨온 사람이라
온종일 서운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을 환송하며 촛불을 켜놓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라는 찬송을
남아있는 다일패밀리들과 다함께 불렀는데
눈물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기에
오직 믿음으로, 기도와 눈물로 보냅니다.
돈과 물질이 있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간대마다 보호하며 양식주시기를 바라네.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사망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아하!!



필리핀에서 온 할머니 이야기

다일의 스텝 중 한명이 보여줄 곳이 있다며 우리의 손을 이끌고 찾아간 집.

팔순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홀로 살고 계신 그 집은 어느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아 할머니만큼이나 외로이 서있었고 그 내부는 너무 비참해서 한참동안 할 말을 잃게 했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는 할머니가 오로지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이 창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할머니를 향해 손을 내미는 순간 오랜 외로움 속 기다림과 그 동안의 두려움을 안은 채 그 창을 조심스레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 맞잡은 손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남은여생만큼은 보호받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당신의 손을 내밀어 그 손을 함께 잡아주세요.





‘밥心’ 캠페인



밥이 아닌 옷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입을까?’ ‘버릴까?’ 고민하는 옷들,
옷장속에 잠자고 있는 묵은 옷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죠.

언제 다시 그 옷을 꺼내서

입게 될지 모른다는 걸...

작년에 안 입은 옷은 올해도 안 입게 된다는 거 아시죠?

이제 그 옷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감히있는 옷장이 아닌,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주인 만나

즐겁고 기쁘게 입혀서 멋지게 뽐낼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문의 / 02-2214-0365 / 밥퍼나눔운동본부 babfor@dail.org
(보내실 곳)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번지 밥퍼나눔운동본부



01 <밥퍼> 그림축제



02 <다일천사병원> 치과 자원봉사자 손김 선생님

01 밥퍼니눔운동본부

희망의 '주머니텃밭' 함께 나눠요

서울특별시와 신한금융그룹,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 고추와 상추 모종을 심고 나누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희망의 싹을 틔우는 주머니텃밭은 어르신들께 가꾸는 즐거움과 삶의 의지를 전해 줄 것입니다.

밥심 그림축제

소망교회 봉사팀, 예빛 사물팀이 함께한 흥겨운 그림축제가 있었습니다.

처음 붓을 잡아보신 분들께서는 신선한 경험이, 그림을 끝까지 그리셨던 분들께서는 추억을 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여한 어르신들은 소망교회 박명희 권사님께서 소중히 그림들을 엮어 하나의 멋진 작품으로 선보여 주실 그날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02 다일천사병원 소식

새로오신 치과 자원봉사 의사선생님

미국에서 치과면허를 취득하시고 한국에 입국한 손김 선생님. 앞으로 1년 간 봉사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가 아파 고생하시는 많은 환우들이 치유받길 소망합니다.

금연검 후원

금연검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흡연 환자분들께는 약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금연입니다. 많은 환우분들이 금연하고 건강을 되찾길 바랍니다.

심전도 기부, 혈압계 후원

소식지를 통해 필요한 물품 후원을 요청하였는데, 한 벗님께서 쾌히 심전도와 혈압계 구입금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의약품 지원

어린이약품지원본부를 통해 필수 의약품을 지원받았습니다. 환자들을 위해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정신과 진료시작

이곳을 찾아오는 많은 환우분들이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등을 호소하시는데 김지혜 신경정신과 선생님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후원과 자원봉사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03 다일작은천국 소식

세족식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고자 세족식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발을 만져주고, 씻어 주는 것이 처음

이어서 어색해 하기도 하였지만, 이내 곧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세족식을 통하여 우리안의 사랑과 섬김을 다시한번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활절 세례식

부활절을 맞아 세례신청자를 받았는데, 다섯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부활절 당일, 설레이는 맘으로 세례를 받는 분들을 보며 그 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 감동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다섯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홍진우님 천국환송예배

간암말기로 입소하셔서 행복하게 지내시던 홍진우님께서 4월 20일 아침에 임종하셨습니다. 항암치료 중에는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임종이 다가오자 참 평안하게 가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다일작은천국 모든 가족들이 가시는 길에 함께 해드렸습니다.

04 다일평화의마음

DTS 21기 박정식님 훈련 수료

DTS 21기 훈련생 박정식(하잔수)형제님이 4월 8일 3개월의 훈련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박정식 형제님은 훈련을 마치고 캄보디아로 부름을 받아 4월 30일 출국 하십니다.



03 <다일작은천국>故홍진우님 천국환송예배



04 <다일평화의마을>한경희생활과학 후원물품



05 <여향어린이집>유아안전교육

매일의 저녁찬양예배

DTS 훈련원에서는 4월 달부터 만도(저녁기도)시간에 찬양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주는 다일공동체이길 소망합니다.

후원 물품

한경희생활과학에서 DTS 훈련원에 생활용품을 한가득 후원하셨습니다. 이 물품들은 설곡산과 다른 분원에 나누어서 주님의 사역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하신 한경희생활과학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5 여향어린이집

어린이집 텃밭 조성

지난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하여 여향어린이집도 텃밭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밭에 돌도 고르고 감자와 토란, 상추, 치커리 등 여러 종류의 식물모종을 심었고 우리 친구들은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상추씨와 꽃씨를 직접 뿌려도 보고 사랑을 가득 담아 물도 주며 식물들이 잘 자라기를 기도했습니다. 매주 물을 주고 관찰하며 우리 친구들이 심은 식물의 성장과정을 관찰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땅의 의미와 수확의 기쁨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아안전교육

4월 9일에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성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소중한 나의 몸으로 우리의 소중한 몸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에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집에 등원할 때 안전하게 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어보고 차도와 인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4월 생일잔치

4월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의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도, 생일을 축하해주던 친구들도 모두 함께 감사기도를 드리며 따뜻한 봄 날씨에 활짝 핀 벚꽃처럼 우리 친구들의 얼굴에도 함박웃음이 가득했던 즐거운 생일잔치였습니다.

해 외 분 원 소 식

06 필리핀다일공동체

다일드림유치원 제2회 입학생 모집

필리핀 다일드림유치원은 제2회 입학생(40명)을 모집 중에 있으며, 꼭 입학시켜야 할 원아들은 가정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해원협 단원들의 뜨거운 활약

해원협 단원인 추고는 간사의 지도로 다

일중찬단을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박예나 간사는 영어를, 신경숙 간사는 수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도시락 배달

독거노인들과 끼니를 거르고 있는 노인들을 찾아서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빈 도시락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날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10주년 기념, 봉사여행

다일교회 정순용·이정은 집사 부부가 결혼 10주년을 기념하여 두 자녀(정윤성, 정윤주)와 함께 봉사여행(4박5일)을 오셔서 선한 사역에 힘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7 베트남 다일공동체

모금함 설치

작년 한인들이 모이는 마트, 카페, 식당 등에 설치한 모금함 중 푸미흥 지역의 마트에서 첫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른보다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손을 내밀어 주었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렇게 모인 후원금이 씨앗이 되어 밥퍼의 사역이 베트남 땅에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도합니다.



06 <필리핀다일공동체> 가정방문



07 <베트남다일공동체> 포스코 ICT살후원

포스코 ICT봉사

이번 봉사때는 쌀과 바나나를 가지고 오셔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쌀을 직접 전해 주시고, 바나나도 식사하러 오신 분들에게 밥과 함께 직접 나누어 드렸습니다. 덕분에 감사하고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포스코 일일 차량지원

한인들이 봉사하시기를 희망하시지만 이동거리가 멀고 교통편의 문제로 못 오는 사연을 들은 포스코ICT에서 일일 차량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차량을 지원해 주신 포스코ICT와 봉사와 후원을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차량문제가 해결되어 봉사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은행 호치민지점 직원들 봉사

최철우지점장님과 함께 현지인직원을 포함하여 11명의 직원들이 밥퍼 센터에 봉사를 오셨습니다. 최철우지점장님께서 밥퍼에 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환하게 웃으시며 "제가 행복하려고 왔습니다."였습니다. 기쁘고 환한 표정으로 밥을 푸시는 모습을 보면 함께하는 우리들이나 밥을 드시는 분들 모두 행복해 집니다. 봉사뿐만 아니라 후원금\$500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은행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카메라를 후원해 주실 천사를 찾아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는 베트남다일공동체 사역에 관한 모든 기록을 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낡고 오래된 카메라 대신 새 카메라를 후원해 주실 천사를 찾습니다.

08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KT&G 봉사팀 봉사

KT&G 사회복지사 봉사자 두 팀이 3월 25일-31일, 4월 1일-7일 일정으로 방문, 봉사하셨습니다. 집짓기를 비롯해 밥퍼, 빵퍼, 위생봉사와 아동결연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앨범을 선물해주셨습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동역해주시는 KT&G 봉사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활절 계란 나눔

부활절을 맞아 밥퍼 스태프들과 함께 계란을 삶아 예쁘게 포장하여 주일 예배 때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남은 달걀은 프놈끄라움과 쯡크니어 마을의 형편이 어려운 두 가정을 찾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며 예쁘고 맛있는 계란도 함께 먹고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봉사 단원 방과 후 교실

해원협과 라온아띠 7기 장기봉사단원들이 각자의 특기를 살려 방과 후 교실을 열었습니다. 포스터를 제작하여 센터와 학교에 홍보를 하고 열심히 수업준비도 합니다. 컴퓨터, 한글학교, 미술, 리코더, K-POP교실이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와서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학교에서 예체능 수업을 접할 수 없는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많아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국어 교육

이번에 캄보디아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스태프들의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어 이곳에 오시는 한국인 방문객들과 서로서로가 잘 소통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르은이 수술비를 위해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9 미주다일공동체

영혼의 휴식이 필요할 때, 유빌라페

미주다일공동체 유빌라페에 오셔서 휴식도 취하고 따뜻한 차도 마시면서 영혼의 휴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유빌라페의 모든 수입은 어려운 제3세계 중국, 베트남



08 <캄보디아다일공동체> KT&G 위생봉사

09 <미주다일공동체> 유빌라페 안의 모임장소

10 <중국다일공동체> 어린이집의 새 식구

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탄자니아 등으로 전해지며, 많은 이웃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모임과 문화행사의 장

유빌라페 안에는 중, 소그룹이 모임을 할 수 있는 conformance room과 돌, 생일, 결혼기념일 음악공연등을 할 수 있는 문화 공간도 있습니다. 유빌라페에서 모임과 문화행사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빌라페 미로기도

유빌라페에 만들어진 미로기도는 조용히 침묵과 기도로 걸으며 하나님과 돌이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미로기도를 하시길 소망합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유빌라페에서 나눔과 섬김을 통해 함께 기쁨을 나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0 중국다일공동체

새 식구

하나님께서 다일어린이집에 1년 반 만에 아기(4개월, 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버려진 아기는 사공안국과 민정국

을 통해 어린이집에 왔습니다. 깊은 사연 을 알 수 없어 어떤 이는 한족이다, 어떤 이는 조선족이다 그리고 머리색이 노란걸 보니 신장이나 러시아계다 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일어린이집 식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의 귀한 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호이야기

집에서 기차로 12시간거리에 있는 심양에서 음악학교에 다니고 있는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온 준호와 대화를 나누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입에서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사역자로 살겠다는 간증을 들으며 놀라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저도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준호가 이 아름다운 꿈 소중히 간직하고 준비하도록 준호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성춘이 생일파티

성춘이의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다일 어린이집은 늘 생일 파티를 크고 멋지게 합니다. 낱아준 부모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어린이집에 왔지만 너무도 특별하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아이들이기에 이 세상에 온 것을 온가족이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족식과 부활절 파티

고난주간을 보내며 성목요일, 아이들과 세족식을 했습니다. 중국 특성상 아무 설명 없이 무릎 꿇고 아이들의 발을 씻어주자 모두들 조용해집니다.

침묵이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하는 걸까요? 아이들 마음속에 주님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활주일에는 예배 후 훈춘시 한인교회 성도님들께서 어린이집에 방문하시어 아이들과 함께 삼겹살 파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했습니다. 늘 기도해주시는 뿐 아니라 사랑을 늘 표현해 주시는 참 감사한 훈춘 한인교회입니다.

포콘스(대표 정낙환)의 1년 임대료 후원

어린이집 임대료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때마다 다일의 사역에 힘이 되어주시는 포콘스의 정낙환 사장님과 정낙환 사장님의 지인이신 김익현사장님(유원정밀), 그리고 케이에이치 일렉트로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포콘스는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뿐 아니라 밥파, 이제는 중국까지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시는 귀한 동역자입니다. 마음을 모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밥퍼의 자원봉사자"



김중은 이명신부부
10여 년 전 신혼여행을 밥퍼의 봉사로 대신해서 전 방송사를 뜨겁게 했던 부부는 중국에서 근무하 시면서 올해 결혼기념일도 휴가를 내서 세 아이들 과 봉사를 오셨습니다.



건설공제조합
매년 새봄계 전열을 가다듬는 계기로 밥퍼 봉사 를 선택했습니다. 밥퍼의 인사말처럼 "하시는 일마다 다 잘되시기 바랍니다."



신한생명
창립 22주년 기념 행사를 밥퍼 봉사로 대신했습 니다. 한 분 한 분의 밝은 표정처럼 활기찬 봉사 였습니다. 신한생명 파이팅!!!



양현재단
함께하면 어떤 일도 거뜬하다며 최고의 팀워크를 보 여주시며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양현재단 봉사팀 입니다.



배구선수 한송이
경기 후 피곤함에도 봉사시간에 혹시 늦을까 미리 도착해서 차에서 쪽잠 자고 봉사를 했습니다. 미녀선수답게 마음도, 얼굴도 미려였습니다.



한국벤처투자
매년 봉사 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차고도 넘치는 한스폰 사랑나눔 봉사였습니다.



시스코, DMX코리아
업무도 협력, 봉사도 협력. 두 회사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업무도 봉사도 함 께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열린 생각, 열린 교육을 꿈꾸고 실천하는 서울특 별시교육청 봉사였습니다. 젊은 여러분을 응원합 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에게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 2012년 3월 30일~4월 23일 국내통장 입금 기준입니다

4월 신규후원

감리회장로회중부연회연합회, 강명숙, 강문자, 기정자, 김건호, 김경남, 김계홍, 김관후, 김금분, 김대희, 김도일, 김도형, 김명순권사, 김민교, 김민정, 김성덕, 김성자, 김성진, 김세향, 김순옥, 김순임, 김시라&박준현, 김연경, 김영한, 김예지(저금통), 김우창, 김은숙, 김은지(저금통), 김익현(유원정밀), 김재열, 김준숙, 김진영, 김찬호, 김현미, 나순정, 나유신, 노선영, 늘죽복받으세요, 동산교회, 동창용, 류선경(김옥순), 마금숙, 문낙섭, 민순기, 박명순, 박미지(은총), 박선화, 박운정, 박주희, 박지현, 박진영, 방중근, 배본이, 배지윤, 백수진, 백승수(최순자), 백승원(최순자), 백운찬, 변성기, 변성오, 변성오, 불우아동돕기, 서울시립대학교, 성은주, 성주제일교회, 성현정, 손영자, 송경자, 송은주, 신민욱, 신예리, 신현미, 심정하, 쌍용양회공업, 안인교, 양순정, 예빛사물팀, 오료교회권사회, 오선애, 오유훈, 오은선, 우춘례, 유제구, 유화영, 윤미정, 윤순옥, 이강열, 이경순, 이금순, 이기성, 이기용, 이만성, 이선지, 이설영, 이성희, 이송희, 이순재(정양식), 이아현, 이영숙, 이영옥, 이영주(박춘기), 이은준, 이은혜, 이은혜, 이아슬, 이인희, 이정미, 이정화, 이찬복(마금숙), 이현조, 이진우, 이호심, 이호진, 임근홍, 임윤환, 임채연, 장미, 장옥희, 정광식, 정미경, 정순덕, 정연우&김유미, 정은영, 정해소, 정혜진, 정호진, 조기향, 조연아, 조은애, 조종인(김현실), 조지연, 조창용, (주)케이에이치일렉트로닉스, (주)사라코스메틱케어그룹, 지연옥, 진숙, 차순영, 채위순, 최경희, 최길주, 최민진, 최산, 최재혁, 최주영, 최희정, 하미선, 황선영

반퍼나눔운동 후원

강찬훈, 오릭스저축은행, 김중운 이명신, 신한생명(사랑의정김다리), 옥합선교회, 소망교회 구제부, 소망교회 소망봉사단, 흥경화, 소망교회 소망봉사팀, 지정연, 한국벤처투자, 김수일, 홍남숙, 박종일, 김성철,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한송이팬클럽, 이종욱, 이숙의(스마일남), 휘경여고학부모회, 이상호, 지혜인, 김정현, 이창숙, 김승현, 일산은혜교회, 서울메트로, 중소기업중앙회 신우회, 지방행정연수원 고급리더과정, 정희주, 엠엔글로벌, 양현재단, 현대상선, 외환은행나눔재단, 이동원, 서장선, 수도권산악회, 최주영, 다일교회, 에이엠지코, 이영숙, 대한지적공사(동대문지사), 최경근, 쌍용양회공업, 최다영, 건설공제조합, 지방행정연수원 여성리더과정, 국방홍보원, 이일옥, 동산교회, 태광산업, 서울시교육청

후원물품

3/20 가나다푸드시스템 김치 20kg
3/21 사조대립 동그랑땡 1318봉
3/23 서울유유 두유 1,008개
3/26 DMX코리아 쌀 20kg 5포
3/26 시스코 쌀 10kg 6포
3/27 가나다푸드시스템 김치 20kg
3/28 사우트코리아 김치 40kg
3/30 강민수, 이초아 산나물 1Box, 돼지감자 1Box
3/30 김명순 돼지감자 1Box
4/ 2 수도권산악회 쌀 70kg
4/ 3 가나다푸드시스템 김치 20kg
4/ 4 양현재단 바나나 11Box
4/ 4 사조 치킨가스 258봉

4/ 5 동방유통 육계 30마리
4/ 5 김영한 쌀 20kg 1포
4/10 강민수 이초아 나물 1Box
4/10 가나다푸드시스템 김치 20kg

다일작은천국

후원금
오료교회 권사회, 남연옥, 동창용, 황희창, 신명순, 이금순, 서일중학교, 경광현, 알리안츠, 우리은행, 강홍순

후원물품

무명 - 계란10판

다일평화의마음

박혁, 한경희생활과학

< 해외분원 >

중국다일공동체

(주)소명철강, 지춘란, 평생후원자, 한기모, 박혁(바뀌님), 대전동안교회, 스마일님(미국), 훈춘시 자선협회, 훈춘시 영광제빵(빵), 훈춘시 한인교회(삼겹살파티), 사라, 릴리선생님(빵), 훈춘 제1중 학생들 4팀(과일,간식), 홍원포 장로님(빵), 김성재(OP), 이은준
임대료 특별후원 - 포콘스(대표 정낙환), 유원정밀(대표 김익현), 케이에이치 일렉트로

2차 소방시설 특별후원 - 미국 시카고 스마일님, 스마일피기님

캄보디아다일공동체

서울마포구의회구의원 김수진, 한국유치

원종연합회 구리남양주시립유치원장 이동그린파이낸셜(프놈평정기후원), 사랑의등지원장 정순영목사, kt&g봉사팀, KADO 전남강진 마량면 이장단협의회, 이성경,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유성수집사님, 라온아미 7기, 로마린다한인교회 김교순, 쓰리투스 장로교회 백순선, 백연수, 하나투어 관광객, 푸켓한인교회

필리핀다일공동체

필리핀PTS한인교회, 지일환, 문정호, 한상소, 정순용, 신동환, 김건희

베트남다일공동체

포스코ICT 쌀 40kg, 바나나, 서명식(의류), 도넛도넛(도넛43개), 우리은행 호치민지점, 한희준, 최철우지점장의 10명, 포스코ICT 김광석소장의 10명. 최용하, 안연숙, 최다원, 최다현, 이은하, 박선희, 최미영, 김성태, 이택희, 박명순500,000동, 박정규500,000동, 김수현500,000동, 정수영500,000동, 김형주500,000동, 서홍석1,000,000동, 곡충인 초코파이 7상자&유유3상자
나눔회원(\$100의 기적) 우리은행 호치민지점(\$500), 최다빈, 심재호, 김문영, 이은하, CHUNG, 동나야(MCB), 박봉철(기업은행 호치민지점장), 사이공한인연합교회

다일은 여러분의 맘과 정성이 담긴 귀한 후원금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일복지재단 후원안내 ARS 060-708-1588

다일복지재단 후원 방법 안내

1. CMS(자동이체)

-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주시면
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2. www.dail.org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후원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손쉽게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후원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모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참여

후원 문의_ TEL 02-2212-8004

FAX 02-2212-8032

www.dail.or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1동 497-77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국내

후원 문의_ TEL 770-813-0899

미주지역 후원계좌

-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 은행번호 : 061119794
- 계좌번호 : 1510014622
-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 334001270347
-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 (한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 (미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 국내후원계좌 국민은행 : 467701-01-053115

미주다일공동체 후원 문의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33

국내 및 해외 분원 연락처와 후원계좌

밥퍼나눔운동본부 문의 전화 02-2214-0365

E-mail babfor@dail.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10901-04-037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설곡산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31-585-2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64419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천사병원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minjuna8@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975-87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작은천국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emhok@dail.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평화의 마을 문의 전화 031-568-5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중국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6-433-753-8004

E-mail mookanri@dail.org

후원계좌 기업은행 017-033086-01-02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베트남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4-95-999-1004

E-mail lplhome@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9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55-78-708080, 855-12-808861

E-mail histime@dail.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142565

프놈펜밥퍼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14257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필리핀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70-8220-3278

Mobile 63 927 560 7346

E-mail graceke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네팔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977-9841-384069

E-mail babperdail@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70 8220 3669 255 786 740 003

E-mail bcj337@dail.org / dail8004@gmail.com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3395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주말 특별 프로그램 시작!!!



다일영성수련이

2박 3일 '주말, 아세찾기 영성'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준비되었습니다.
주말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영성훈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 6월

5월 04일(금) ~ 5월 06일(일) : 생명축제 (2박 3일)

5월 11일(금) ~ 5월 13일(일) : 주말, 아세찾기(Ⅰ) 2박 3일

5월 18일(금) ~ 5월 20일(일) : 주말, 아세찾기(Ⅱ) 2박 3일

5월 25일(금) ~ 5월 27일(일) : 침묵, 묵상수련 (2박 3일)

6월 01일(금)~6월 03일(일) : 주말, 아세찾기(Ⅰ) 2박 3일

6월 15일(금)~6월 17일(일) : 주말, 아세찾기(Ⅱ) 2박 3일

6월 22일(금)~6월 24일(일) : 침묵, 묵상수련 2박 3일

6월 25일(월)~6월 29일(금) : 1단계 아름다운세상찾기 136기 (4박 5일)

주말, 아세찾기(아름다운 세상찾기)는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을 위한
다일의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수련입니다.
아름다운세상찾기를 두 주간에 걸쳐 (Ⅰ), (Ⅱ)로
나누어 수료할 수 있습니다.



인도 |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한동대학교 겸임 교수
K-TV 멘토링 토크 진행
CBS-TV 새롭게 하소서 진행

저서 밥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도서출판 다일)
마음열기(중앙M&B)
더 늦기전에 사랑한다 말하세요(동아일보사)
행복하소서(위즈덤하우스)
신간 밥心(마음의숲) 등

설곡산다일공동체 T: 031)585-2004
www.dail.org/youngsung H: 010)6375-8004

설곡산다일공동체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설을 단체와 교회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피정을 통해 심과 사색과 명상 및 침묵기도를 자유롭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 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 마감하며,
수련비 입금(농협 351-0166-0367-83 예금주:이태형)으로 등록 완료됩니다.
영성수련은 한 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밥퍼 365 달력

7월

MON	TUE	WED	THU	FRI	SAT
2	3	4	5	6	7
9	10	11	12	13	14
16	17	18	19	20	21
23	24				
30	31				

8월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24	25				
31					

6월

MON	TUE	WED	THU	FRI	SAT
				1	2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8	19	20	21	22	23
25	26	27	28	29	30

9월

MON	TUE
3	4
10	11
17	18
24	25

FRI	SAT
5	6
12	13
19	20
26	27

11월

MON	TUE
5	6
12	13
19	20
26	27

FRI	SAT
7	8
14	15
21	22
28	29

밥퍼 365 달력이란?

매일 1,000여분의 무의탁 노인과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밥을 퍼드리는 '밥퍼'
하루 하루 배식비를 십시일반으로 채워나가는
밥심 나눔 캠페인입니다.

밥퍼의 하루 배식비는 250만원!
기업과 단체, 교회와 개인 그 누구라도
밥퍼 나눔에 동참해주시길...

문의_02)2214-0365 babfor@dail.org



배식비 반액후원

배식비 전액후원